"모든 선근 심어 공덕 키운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⑥ 십대수(十大受)

"법의 주인이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증명해 주시옵소서. 오직 부처님께서는 증명해 아실 것이오나 여러 중생들은 선근(善根)이 얕은 탓으로 혹 의심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 10가지 큰 서원 십대수(十大受)는 지극히 어려운 까닭에 저들이 혹 긴 밤에 의로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안락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안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씀드리오니 제가 이 10가지 서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원으로써 대중 속에 마땅히 천상의 꽃이 비처럼 내리며 천상의 미묘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허공 속에서 가지가지 천상의 꽃이 비처럼 내리고 미묘한 음성이 나왔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 진실로 다르지 않느니라."

대중이 모두 천상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묘한 음성을 들어 가지가지 의혹이 모두 없어지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언제나 승만 부인과 더불어 같이 만나 행하는 바도 또한 같아지기를 발원하였다. 세존께서는 대중이 모두 그 발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10가지 서원을 발한 승만 부인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다. 상서로운 길상이 나타나 천상에서 꽃이 쏟아져 내리고 대중의 의혹을 풀어준다. 〈법성게〉의 "보배의 비가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허공에 가득하다(雨寶益生滿虛空)"는 말처럼 승만 부인의 서원에 꽃비가 내린 것이다.

이를 본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십대수의 원을 실천하여 승만 부인과 같이 되기를 발원한다. 〈승만경〉은 여러 사람들이 발원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있다. 여기에도 묘한 상징성이 있다. 인간의 염원이 진실하면 그 염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은 믿는 대로 보이게 되며 아는 것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큰 서원을 발하는 진실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쪽으로 긍정되어지고 조화되며, 통일되는 근본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중생의 업이 충돌하여 온갖 부조리하고 이율배반적인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세상의 근본진리 자체가 잘못되는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수기는 이 세상을 긍정해주어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의 마침표이다. 승만 부인의 수기에 이어 대중에게도 발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 것이다. 이는 선근이 성숙되어 자리이타의 공덕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선근을 심어 공덕을 키운다(種諸善根 長養功德)"는 불교의 유명한 격언(格言)이 있다. 선근이란 선을 자라게 하는 뿌리라는 뜻으로 좋은 과보를 초래하는 좋은 업인(業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본(善本) 혹은 덕본(德本)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탐(貪), 진(瞋), 치(癡) 삼독(三毒)이 사라진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를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아함경〉에 설해진 내용에 보면 사리불이 구치라에게 묻는다. "어떤 것이 선을 아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선근을 아는 것입니까?" 구치라가 답하기를 "몸으로 짓는 훌륭한 행위가 선이며, 입과 뜻으로 짓는 훌륭한 작용을 선이라 하며, 탐욕이 없는 것이 선근이며 성냄이 없는 것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선근이라 합니다.

선과 선근을 알면 지혜를 성취하여 정견을 얻고 정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고 하였다.

〈아함경〉 등에서는 이렇게 삼독심이 없는 것을 선근이라 했다. 〈대방등대집경〉에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보살의 사무량심인 자(慈), 비(悲), 희(喜), 사(捨)가 모든 선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고, 〈해심밀경〉에서는 "모든 악법을 짓지 않고 모든 선법을 부지런히 닦고 익혀 선인(善因)을 훈습함으로써 선근을 심는다." 하였다. 따라서 승만 부인처럼 서원을 발하는 것은 최대의 선근을 심는 일이 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 서원 믿는 것부터 시작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㉙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지혜를 완성하고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며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 중생들의 귀의처입니다.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면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가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대승보살도를 완성하여 궁극에는 성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한다면 현실적인 괴로움을 제거하고 지혜를 얻어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 건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으로 대자비를 실천하며 중생을 위해 윤회 세계에 끝없이 원생(願生)을 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이룬 부처님이지만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겠다는 대비심과 서원으로 갖은 변화력으로 화신하며 중생이 고통 받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태어나 우리들과 함께 살며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체중생을 교화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귀의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중생구제의 서원과 대자대비심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들은 스스로 서원이나 대비원을 세워 자발적으로 지옥을 비롯한 삼악도에 태어나십니다. 대보살은 이미 높은 수행을 닦아 수승한 경계에 계시지만 중생을 구원하려는 서원과 대비심으로 중생이 고통 받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께서도 법장비구로 수행할 당시 48가지 본원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극락교주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대자대비하신 이타구세의 원력과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중생들의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음신앙을 신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의 신행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행은 관련된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서사하거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는 염불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신앙의 신행은 세간적 가피를 구하는 목적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구원력을 똑같이 닮으려는 방향까지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보리심과 대비심에 대해 올바르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수행 덕목입니다.

〈법구경〉에서 "믿음은 능히 도를 얻고, 법은 열반을 얻는다" 가르침에서 보듯이, 초기불교 시대 때부터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서원과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원하시는 구제력을 믿는 2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신행의 첫 시작점은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구원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행자가 먼저 관세음보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갖춰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칭명염불이나, 간경 등의 실천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대비심에 대한 믿음은 관음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⑥ 그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여섯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겨난다.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 또는 이와 같이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견해의 험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이라고 부른다. 〈모든 번뇌의 경〉

과거와 미래,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에 우리는 없다. 어떤 곳에 우리가 있다면 모든 이 길을 온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지도가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 없이 그저 그 자체가 된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이 되어 본적이 없고, 무엇이 변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다. 미래세에 무엇으로 되지도 않고, 미래세에 어떻게 있지도 않다.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며, '나는 어떻게 있다' 라는 특정한 형태가 없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무아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무아를 체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이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때에 따라 자신의 편리를 위해 쓰는 그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쓰는 그냥이다. 성품이 지금 이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만 없으면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생각이 들어가면 표현력이 왜곡된다. 그냥, 있으면 스스로가 따로 모양을 가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길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아무것으로도 규정하지 않으려고 오는 길이다. 규정된 것은 전부 생로병사를 갖는다. 생로병사 자체가 고(苦)이므로,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를, 규정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고 빠르게 지켜본다. 내 모양을 고집하면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나의 모양을 주장하면서 모양 없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규정하려고하는 것은 전부 사변적인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견해의 심취, 정글, 험로라고 표현하셨다. 생각 속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길이 없는 정글을 뚫고 가는 것과 같은 험로이다. 바른 견해의 길이 없는 생각은 오온이라는 실체하지 않는 '아(俄)'가 있어 왜곡된다. 그래서 왜곡을 어떻게 해보려는 견해의 몸부림을 치지만 생각은 이길 수 없다. 생각은 모든 나의 발걸음을 다 묶어버리는 것과 같다. 스스로의 자승자박이 견해의 결박인 것이다.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어째서 무(無)라고 했지?

이때 말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앎. 대답하려고 찾는 그것에 대한 앎.

입을 열 수 없는 그때, 모든 문이 없는 줄 안다. 참으로 별것 없는 그 답.

안다는 것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도 없는 그것. 그저 대답해야 하는 내가 있는 줄 아는 그 착각. 그때 어둠이 그치고 장애 없는 시야가 확보된 그것. 다시 봐야 할 것도 다시 들어야 할 것도 없는 그것.

말해본들 입을 열지 못하고 쓸데없이 노잣돈만 빼앗긴다. 모르는 이와 동문서답. 그래도 눈을 쳐들고 위로 향하니 어긋남 속에 겨우 제자리.

님아, 님아, 걱정마오. 그대에게 모자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눈을 아래로 향할 것이니, 그때 한 번 일심이 되어 봅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은혜사
• 주 지 : 만법 (속명 : 김남수)
• 주 소 : 김해시 가야로497번길 10~11(동상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